

케냐 방문하신 시간은 저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이월의 중순을 넘어가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일월과 이월에 단기팀들과 방문하시는 분들을 맞으며 더 분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방문하는 빛의 교회 팀은 카부쿠교회와 마이시키리아교회에서 주기도문 학교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다시 고통을 받는 마사이주민들에게 양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나 풍성하심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처음인 예수애교회 단기팀 10명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물이 없어 사흘을 지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사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마사이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아주 오래된 랜드로버를 개조하여 만든 차로 장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부인을 잃은 이삭형제는 이번 가뭄으로 유일한 재산인 소 15마리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마이시키리아 마을엔 가축은 한 마리도 없이 모두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났다가 약간의 비가 온 후 돌아난 풀을 먹으려 거의 모두가 나갔던 숫자보다는 적게나마 소와 양을 끌고 돌아왔는데 이삭형제의 소는 한 마리도 못 돌아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인천 방주교회에서 방문한 팀이 10마리의 송아지를 10가정에 나누어주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이삭형제 가정에 주어져 그래도 약간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다른 가정들도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마사이 마을 울로세이키 학교 교실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칸의 교실과 점심을 준비할 부엌과 양식 창고를 짓고 있는데 정택윤선교사가 며칠씩 머물면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번 마이시키리아 교회 건축경험이 있는 이정도선교사가 여러 가지로 도우면서 같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1월 3일에 아들 제임스의 장례를 마쳤던 제임스의 어머니는 그 후 한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2월에 들어서는 성가대원이 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의 슬픈 기색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슬픔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달 말로 케냐 생활 18년 중 16년을 살던 카부쿠 집에서 교회 컴파운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16년을 한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아 참 감사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케냐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컴파운드 안에서 살면서 좀 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사 후에는 바로 4달의 아직 한번도 해보지 못한 안식월을 가지려합니다. 2007년 사모의 암투병시 쉬었던 7개월의 시간외에는 특별한 안식의 시간이 없어 이번 기회가 저희에게는 영육 간에 큰 회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은 큰 공백이 없이 잘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현지 전도사들과 협력하여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모든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늘섬겨주시는 JSB 모든 임원들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4개월 안식 월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일 되며 영육간이 안식으로 재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2. 저희가 없는 동안 이곳 사역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3. 이정도선교사가정과 정택윤선교사가정이 더 좋은 협력자로 정착하도록